

한국 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김 영 주*

차 례

- | | |
|----------------|------------------|
| I. 서 언 | II. 한국 군사박물관의 현황 |
| III. 외국의 군사박물관 | IV. 한국 군사박물관의 과제 |

I. 서 언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예술·역사·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고 조사·연구하여 일반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박물관을 일반 박물관과 대비하여 명확한 구분 개념으로 정의하는 데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군사자료’와 관련된 전문박물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인류의 역사를 곧 전쟁의 역사로 파악하는 견해까지 대두될 정도로, 역사의 전개를 이해함에 있어서 ‘군사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역사속에서나마 격랑의 현대사를 헤쳐오는 동안 ‘군’이 차지하고 있었던 독특한 위상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이미 우리 역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듯 군사문제가 결코 소홀히 처리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전사자료를 포함한 각종 군사분야의 실물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군사박물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나 중요성 등에 대한 관심이 군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실상은 군사분야가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서 특수 영역으로 소외되어 온 것과 더불어 군사자료의 빈곤성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발표문은 한국에 있어서 군사박물관의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대학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박물관학’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장

군사박물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한 기획한 의도대로라면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삼군의 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의 편의와 필자의 한계로 인하여 공군박물관을 위주로하고 타군 박물관의 현황을 참고하는 선에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본 발표문은 다만 시론적인 제안으로서, 앞으로의 군사박물관에 대한 관심있는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한국 군사박물관의 현황

가. 연혁

현재 한국에는 육·해·공군에 각각 1개씩 모두 3개의 군사박물관이 있다. 건립이 추진중인 전쟁기념관이 완공된다면 우리는 모두 4개의 군사박물관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최초의 군사박물관은 1956년 육군장교단의 성금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육군 기념관이다. 1983년에 지금의 건물이 완공, 육군박물관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대실’과 ‘현대실’로 구분하여 고대 화포류·창검류 등으로부터 현대 총포류·장비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군사재를 전시하고 있다. 소장료는 무기류가 보물 9점을 포함하여 2237점, 군장류가 보물 1점을 포함하여 2900점, 병서화류가 보물 2점을 포함하여 2778점 등 총 7915점이고 이중 1314점이 전시되고 있다. (표 1)

(표 1) 군사박물관 소장 자료 현황

육군박물관		해군박물관		공군박물관	
무기류	2,237점	함정류	531점	항공기류	24점
군장류	2,900점	무기류	281점	무기류	61점
사서화류	2,778점	군장류	1,084점	군장류	423점
		사서화류	784점	사서화류	893점
		기타	1,263점	기타	515점
총	7,915점	총	3,943점	총	1,916점

해군박물관은 1976년 해군사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되었다. 1980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1990년에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충무공실’ ‘해군해양실’ ‘해사실’로 구분하여, 해군의 각종 군사재를 전시하고 있다. 해군박물관에는 ‘이충무공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거북선에 별도로 3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등 전문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소장자료는 함정류 531점, 보물 1점을 포함한 무기류 281점 등 총 3943점으로 964점이 전시되고 있다.

공군박물관은 1978년 발족한 공군기념관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동하면서 공군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공군역사관’과 ‘공사역사관’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는

이외에, 야외전시장을 마련하여 각종 항공기 등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장자료는 항공기류가 20종 24점, 무기류가 57종 61점, 군장류가 301종 423점 등 총 1184종 1916점이며 이중에 471종 831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1964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여의치 못하다가, 1989년 전쟁기념사업회가 창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호국관·역사관·6.25전쟁관·월남파병관·국군발전관 등 총 5개관 12개실로 구성될 이 기념관은, 1993년에 개관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용산의 옛 육군본부 자리에 대지 3만5천평, 연건평 2만5천평의 규모로 600여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건설된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은 전쟁, 특히 한국전쟁을 기념해서 건설되는 ‘기념관’적인 성격이 짙어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군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은 기존의 삼군박물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능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기능으로는 수집·보관·전시·연구 기능등이 언급된다. 여기에 현대에 들어와 박물관의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교육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면 박물관의 일반적인 기능이 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물관의 기본적 요소가 그 자료에 있는 것이니만큼, 박물관은 항상 가치있고 풍부한 실물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자료의 수집은 박물관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박물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집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수집의 방법으로는 채집·발굴·구입·기증·교환·위탁·출품·차입 및 복원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데 군사 박물관의 경우, 자료의 수집을 거의 전적으로 기증 또는 이관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군의 특성상 전근대의 자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굴과 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면은 있지만, 근현대의 각종 자료는 구입이나 교환 등의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이나 해군의 경우 군사자료의 발굴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발굴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구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정상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군사박물관의 자료는 대부분이 기증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료의 양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현대 군사자료의 경우 자료적 가치가 수집의 기준이 되지 못하여, 심지어는 개인적 기념품 차원에 불과한 것까지도 기증받고 있는 형편이다.

수집된 자료가 모두 전시될 수는 없다. 우선 전시장의 규모가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전시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며, 전시 기획의 의도에 따라 전시할 대상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되지 않고있는 자료라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 가치와 관계없이 전시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에 자료의

보관이 갖는 중요성이 대두한다. 수집된 자료는 보존을 위하여 계통적으로 정리 분류하고, 퇴색 방지·방충·방습 등을 완비한 자료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전시·대출 등의 요구에 능률적이며 안전하게 대응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군사박물관의 경우, 자료의 보관체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우선 자료의 분류 및 정리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것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료의 분석이나 평가·열람·전시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측면에서도 과학적 영구보존대책이 미흡하여, 일부에는 항온항습기와 같은 기본적인 설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군박물관의 경우 항공기 전시를 위해 야외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퇴색·변조·파손의 우려가 상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자료의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관리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의 자료가 단순히 수집·정리·보관·연구될 뿐이라면 연구소와 다를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시는 박물관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라 할수있다. 삼군의 군사박물관에 있어서도 전시기능은 가장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며, 전반적으로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많은 문제점이 엿보이고 있다. 우선 전시공간의 배정문제이다. 삼군 박물관 공히 각 사관학교에 부설된 형태로 있기 때문인지, ‘교사자료실’의 형식을 띤 공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해군박물관에 ‘해사실’이, 공군박물관에 ‘공사관’이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육군박물관에도 ‘현대실’의 일부에 사관학교 관련자료를 비중있게 전시하고 있다. 전시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진자료나 모형과 같은 2차 자료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개인 기념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는 것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적이 되었듯이, 수집과정이 기증 위주로 진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전시 방법에 있어서도 평면적인 전시체제로 일관하여, 전시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박물관에 수집·정리된 여러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조사연구에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박물관의 전문 직원인 학예관이나 기타 전문가에 의해 조사 연구되어 학문적인 가치로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군사박물관이 각군의 사관학교에 부설된 ‘대학박물관’의 형식을 띄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군사박물관’이라는 점에서 박물관 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이외에도 ‘군사사’ 나아가 ‘군사학’ 전반에 걸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군사박물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인듯 하다. 각 군사박물관에서 조사연구를 위해서 배치한 인원은 공히 1명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전임 연구원이 아닌 교관등의 겸직자로 충원되고 있으며, 조사연구 보다는 박물관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박물관회의 즉 ICOM의 현장에는 “박물관이라 함은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에 관한 수집품 및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표본 등을 각종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연구하여 일반 대중의 교육과 오락을 위하여 공개 전시함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룩된 항구적 시설을 뜻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박물관법에는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미술·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일반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 장황하게 인용한 감은 있지만, 박물관의 기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집·보관·전시·연구 등 이외에 교육적 활동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군사박물관에 있어서도 교육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도나 소속 장병들에게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군사박물관은 일반인에게도 박물관을 무료 관람시키고 있으며, 육군과 공군의 박물관은 공휴일에도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안내요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육성 안내 위주로 진행되어 집단적인 견학시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공군 박물관에는 안내 책자 및 도록이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삼군 공히 내방객에 대한 편의시설의 부족도 함께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 조직

박물관의 목적을 의도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및 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뛰어난 직원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박물관에는 관장 외에 학예관, 사무직원, 기술직원 및 기타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군사박물관의 조직은 12명(공군박물관)에서 19명(육군박물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표 2) 숫적인 측면에서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박물관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학예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학예관은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 및 그 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 박물관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학예관은 박물관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뛰어나고 교육활동가로서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군사박물관의 경우 학예관의 배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아닌 인원에 의해서 학예관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표 2) 군사박물관의 조직 편성 현황

육군박물관		해군박물관		공군박물관	
직책	인원	직책	인원	직책	인원
박물관장	1	박물관장	1	박물관장	1
관리관	1	부관장	1	연구담당	1
고대담당	1	기획담당관	1	관리담당	1
현대담당	1	자료담당	1	전시담당	1
안내시설담당	1	전시담당	1	역사기록담당	1
보존처리담당	1	타자·안내	1	행정운영	1
행정담당	1	냉난방·조명	1	행정병	2

행정병 관리병	2 10	거북선 정장 거북선요원 ゝ 행정병 관리병	1 1 1 1 3	관리병	4
총원	19명	총원	14명	총원	12명

삼군박물관 모두가 편성상으로는 유사하다. 현역 중령·대령급의 관장으로부터 소령·중령급의 부관장 이하 3~5명의 군무원들이 각각 전시·자료·관리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그밖의 행정·관리 업무를 사병들이 담당하고 있다. 해군박물관의 경우에는 거북선을 담당하는 요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특징을 엿볼수가 있다. 그렇지만 세 군사 박물관 모두가, 박물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학예관의 경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군사박물관의 편제는 보다 전문화를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한 바와 같은 연구요원이나 안내요원등의 총원 등도 편제의 전문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라. 시설

박물관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로서 관원과 자료와 건물을 든다. 이 가운데 건물 및 그에 부수된 제반 시설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자료가 없는 박물관들이 기탁 대여유물로서 개관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능히 증명되기도 한다. 군사박물관의 경우, 그 규모에 있어 해군박물관의 793평에서부터 육군박물관의 1,984평에 이르기까지 편차는 있지만, 삼군 모두 독립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표 3) 문제는 그 공간의 짜임새있는 활용 여부이다.

(표 3) 군사박물관 시설현황

단위: 평

육군박물관		해군박물관		공군박물관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구분	면적
전시실	1,032	전시실	520	전시실	660
유물수장고	140	자료실	87	사무실	230
보존처리실	5	사무실	66	영화관	74
사무실	42	기계실	36		
강당	147				
영사실	5				

박물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 첫째가 관리·운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전시실·자료고 및 그에 부수되는 준비실·사무실 등이다. 그 둘째가 조사·연구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연구실·실험실 등이다. 그 셋째가 교육·보급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강당·영사실등이다. 세 곳의 군사박물관의 경우 관리·운영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조사·연구 공간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교육·보급활동의 공간 역시 육군박물관에 360석 규모, 공군박물관에 240석 규모의 영화관이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 밖에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이나 효과적인 교육홍보등을 위한 제반 지원시설의 문제이다. 공군박물관에는 항온항습기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주요자료의 영구 보관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야외전시장의 경우에도 전시항공기의 퇴색이나 파손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전시실의 냉·난방은 전시 자료뿐 아니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해군과 공군박물관의 경우 장비가 노후해 신속한 교체가 요청되고 있다.

마. 재정

삼군박물관의 예산운영상태를 살펴볼 때 (표 4) 일단 세 박물관 예산의 양적인 차이가 눈에 띈다. 이러한 양적인 차이는 곧 질적인 구성비의 차이로도 표현되고 있다. 즉 예산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육군박물관의 경우 유물의 매입 등에 사용되는 비품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예산이 가장 적은 공군박물관의 경우에는 유물구입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배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해군박물관과 공군박물관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용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군박물관에 유물구입비가 전혀 배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박물관의 존재의의와도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 박물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자료는 기증을 통해서만은 확보될 수 없으며, 특히 그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구입이나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표 4) 군사박물관 예산 및 구성비 현황

항 목	육군박물관	해군박물관	공군박물관
여 비	0.28%	6.66%	12.20%
수 용 비	33.14%	70.45%	63.27%
재 료 비	0.53%	9.86%	21.69%
관 공 비		2.47%	
공 공 요 금		0.98%	
협 회 비	0.18%	0.96%	2.84%
비 품 비	65.87%	8.62%	
총 계	약 1억2천5백만원	약 2천6백만원	약 7백만원

앞에서 언급한 군사박물관의 문제점의 대부분은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민간 박물관과 같이 재단의 출연이나 모금, 입장료 등과 같은 수입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각 군에 재정체계가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이다. 군의 특성상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우선 순위가 현존 전력의 증강에 주어지는 것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정신 전력의 증강이 물리적인 현존 전력 증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물관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Ⅲ. 외국의 군사박물관

외국의 군사박물관 실태를 일률적으로 단정지어 언급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고유한 역사적 전통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 군사박물관의 실태에 관한 자료의 입수도 간단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본 장에서는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운영 주체의 경우 미국은 대체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박물관, 연방 민간기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박물관, 그 밖에 각 주·군·시나 사설기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박물관 등이다. 그 결과 미국에는 육군박물관이 65개, 공군박물관이 29개 운영되는 등 숫적으로도 가장 많은 형편이다. 대체적으로 각 국은 1개 이상의 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립이며, 각 군별로 독자적인 박물관을 설치한 나라가 많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각 군의 사관학교 안에 박물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재정은 각기의 운영 주체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후원 재단 및 독지가 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박물관들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의 라이트-패터슨 기지에는 미 공군의 중앙박물관인 미 공군박물관이 있는데, 관리책임은 미 공군이 맡지만 민간 단체들에 의해서 재정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장료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고 있지 않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국군 역사박물관’이나 ‘중국 공군관’ 등에서 소정의 요금을 받고 있다.

군사박물관이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이 옛 왕궁의 자리나 부대 안에 설치하고 있었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군 관련 유적지에 공군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었다. 태국은 전쟁 사적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외에, ‘콰이강의 다리’와 같은 곳은 개인이 관광지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항공기의 전시에 있어서는 야외에 방치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미국·영국·벨기에·태국·이탈리아·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실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체적으로 항공기를 전시함으로써 눈·비 등 기상조건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있다.

각종 부대시설의 경우, 영국의 공군박물관은 200석의 강당 이외에도 회의실·군예술품 전시장·매점·레스토랑 등 생활문화 공간을 병설 운영하여 관람객의 편의에 부응하고 있다.

Ⅳ. 한국 군사박물관의 과제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박물관의 현황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단편적으로나마 외국의

예를 살펴 보았다. 이상에서 고찰한 한국 군사박물관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해 볼 때 군사박물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고 몇가지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전방향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박물관의 경우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 박물관에 있어서는 학예관이 박물관의 중추를 형성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군사 박물관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행정직 군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경우 전문 사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군사박물관은 전문요원 충원을 위한 제도 자체가 아직 미편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방부 군무원의 편제에 박물관직렬을 신설하여, 대학에서 고고학이나 박물관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학예관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삼군박물관 중에서 해군박물관에서는 충무공 및 거북선 연구 전담부를 두고 거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구와 발굴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 구성으로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박물관 시설 운영 및 자료 제작, 전시,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실무담당자로서 학예관의 제도적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자료의 수집·정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증에만 의존하는 수집체계나, 수작업식의 정리체계로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유물 자료의 파악과 구입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상의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군박물관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전부가 이관·기증품이며, 짧은 역사를 감안 하더라도 자체 발굴 수집 또는 복원품이 전무한 것은 군사박물관 수집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최근에 와서 박물관 내 소장 자료의 정리·보관체계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광범위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각 대학 및 일반박물관과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일반 박물관이 수집한 군사관련 자료와 분류 방법 등의 정리체계등에 있어서 교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시의 환경 및 시설의 대폭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온항습기와 같은 필수적인 장비의 구입은 물론이고, 전자·전기 시스템의 도입에 의한 시청각 및 입체 전시시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군박물관의 경우 짧은 역사로 인하여 과거의 유물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현재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관람객에 대한 공군 이해증진과 더불어 항공사상 계몽교육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야외전시의 경우에는 유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천후 전시효과를 위해서도 조형미를 고려한 행가등 보호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우기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군사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소장품은 국가 차원에서 군사문화재로 지정하여 적극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군사박물관에 대한 군내외의 새로운 인식과 지원체계의 확대이다. 비교적 폐쇄성을 지닌 군 특성상 지금까지 군사문화에 대한 대내외의 인식은 매우 경직되어 왔으며,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존 전력의 증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주로 한 군 운영체계하에서 ‘과거’에 역점을 둔 박물관 운영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군사박물관 역할·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군 구성원 또는 국민에 대한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군사박물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군사 분야의 고위 정책 결정자층의 공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군 내부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 후원 단체에 의해서 유지·운영되는 외국의 군사박물관의 경우에도 보듯이 각 자치단체나 동우회 등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후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으로부터의 관심까지 포괄할 수 있을 때, 군사박물관은 명실상부한 ‘박물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